

시장 통로·도로 넘치는 쓰레기… 상인·시민 ‘불만’

광주 5개구 전통시장 쓰레기 수거 실태 점검

분리 수거 안된채 거리 수북
운전·보행방해 사고 우려도
상인들도 쓰레기 처리 불만
자치구 “점검·지도 관리 철저”

“안 그래도 시장 길이 좁고 사람도 많아 위험한데 쓰레기까지 있으니 걸어 다니기 불편하네요. 버스 타고 시장 인근을 지날 때면 쓰레기를 피하기 위해 운전기사가 방향을 이리저리 틀기도 합니다.”

지역 전통시장이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장 주변에 쓰레기를 처리할 공간이 충분치 않아 상인들이 음식·자재 폐기물 등을 쌓아놓기 때문이다. 일부 상인·시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며 관할 지자체의 신속한 대처를 요구했다.

최근 찾은 광주 북구 말바우 시장. 방문객들로 북적이는 시장 한쪽에 유독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물건들이 눈에 띈다. 곳곳에 가득 쌓인 음식물·플라스틱 등이다. 산처럼 쌓인 쓰레기들은 보행을 방해하거나 때때로 차도 쪽으로 쓰러져 있어 차량운행을 마비시키기도 한다.

위험한 상황은 해 질 무렵으로 갈수록 심각해진다. 시장이 쉴던 자리에는 매대 대신 쓰레기 더미가 쌓였고 차도 위로는

스티로폼·박스 등이 나뒹굴고 있다. 통행의 불편은 오롯이 시민들이 감내해야 할 몫이 됐다.

윤모(31)씨는 “시장에서 박스나 스티로폼 같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 바람 불면 도로까지 뒤덮여 위험한 상황을 연출한다.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구 양동시장 상황도 비슷했다. 김장하고 남은 배추 등이 종량제 봉투가 아닌 파란색 대형 비닐봉지에 담겨 나뒹굴고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문이 붙어 있지만 아무 관심도 없는 듯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명확한 쓰레기장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일 점포 주인 정모씨는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다. 불법인 걸 알지만 방법이 없으니 한곳에 모아뒀다”고 귀띔했다.

수산물 판매상인 이모(52)씨는 “쓰레기 수거가 쉽게 될 수 있도록 도로 쪽에 버린다. 지정된 장소가 없다 보니 그렇다. 쓰레기가 차선을 침범할 정도로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나온 쓰레기를 매일 집으로 가져간다는 견과점 주인 김모씨는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상인들 때문에 양심 있게 쓰레기를 정리해 가져가는 다른 상인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상인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그 위에 가구·생활 폐기물까지 버



지난 10일 광주 북구 말바우 시장 인근엔 상인들이 장사하고 난 뒤 버린 쓰레기들이 널부러진 채 도로 한쪽을 차지하며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

정성아 인턴기자

리는 양심불량 시민들이 늘고 있다. 산처럼 쌓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광주 5개구 전통시장 관할 부서에 확인한 결과, 시장 쓰레기 전담 배출·수거장이 있는 곳은 전무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쓰레기 차량이 노선을 돌며 수거하는 게 전부였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수거되는 쓰레기 양도 가늠을 못했다. 별도로 관

리·감독하는 사항도 없었다.

한 자치구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쓰레기 차량이 오전 6시 가동된다. 전날 밤 내놓은 쓰레기를 이때 수거한다”며 “원칙적으로는 내 집 앞·내 상가 앞이 쓰레기 배출 지역이다. 그러나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불법 노점상들이 내놓는 양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장 주변에는 공간 확보·상인 협

조 문제 등으로 쓰레기 배출 장소를 만들기 어렵다. 그러나 쓰레기가 도로까지 침범하는 상황에서 빨리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당장은 수거업체 측에 ‘시장 인근 집중 수거’를 건의하겠다. 중·장기적으로 시장상업과 등과 협조해 쓰레기 배출지역을 선정·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현 기자·정성아 인턴기자

SPC 참여 케이앤지스틸, 광주시 전·현 공무원 6명 고발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에 참여한 케이앤지스틸이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광주시 공무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는 13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광주시 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된 6명은 중앙공원 특례사업 담당자와 관련 부서 전현직 공무원들이다.

박 대표는 “광주시 공무원 6인이 무단 SPC 주주변경을 방지했다”며 “사업자 선정 공모행위를 통째로 부정하는 속임수 공모행위의 주범이다”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광주 중앙공원1지구 특례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9950억원을 확보하고도 브리지론으로 차입한 7100억원 중

100억원을 갚지 않겠다며 채무불이행을 통보하는 식으로 주주를 무단변경했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또 롯데건설이 부도난 100억원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대주가 보유한 SPC 주식 70만주에 대한 1순위 근질권을 이양받고, 직후 우빈산업이 보유한 49만주에 대해서만 근질권을 행사해 SPC 주식 명의를 변경 받았다고 주장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했고, 24만주의 주식을 돌려받아야 했다.

박 대표는 “이같은 지분 인수는 기업약탈 사기행위로 감독기관인 광주시는 여전히 방관하고 있다”며 “사업자 선정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던 롯데건설이 사업을 주도하게 된 것을 광주시는 묵인·방조했고 이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사업자선정 행위를 통째로 부정한 중대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송민섭 기자**

시민단체 “전일방직 부지 개발 공공기여 미흡 재검토를”

지역 시민단체가 개발을 앞둔 광주 북구 임동 전남·일신방직 부지의 공공성이 미흡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13일 전남·일신방직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대책위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제안한 내용들이 (공공기여량에) 미반영됐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광주시협상조정협의회에서 전일방직 부지 공공기여량이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예상 상승분 1조835억원의 54.4%인 5899억원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협상 전제조건에 공장건축물

보존 기본원칙 준수의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35m 간선(관통)도로가 반영되면서 일부만 보존·존치됐다. 역사문화공원은 두 군데로 나뉘는데 규모도 축소됐다”며 “주거복합지역에 입주하는 주민들과 상업시설 이용자에게도 이익으로 돌아가는 35m 간선도로 등이 공공기여 시설로 인정된 것은 개발 이익의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이라는 원칙과는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에 △개발이익 사회기여 방안 △복합소방물 영업이익 지역사회 선순환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강주비 기자

“놀 권리·참여권 확대… 아동권리 알게돼 뿌듯해요”

3월 출범…1년간 활동 종료
“아동참여권 중요성 깨달아”
18일 내년 단원 본격 모집

“‘그린즈’ 활동하며 저의참여권이 확대된 것 같아요. 내년에도 또 하고 싶어요.”

지난 3월 출범한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의 활동이 막을 내렸다. 단원들은 1년여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며 아동 권리 확대에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그린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소속 단원으로 광주·경기·대전·대구·부산·제주 등 전국 6개에 분포해 있다. 광주는 6개 지역 중 가장 많은 27명(초등생 12명·중등생 8명·고교생 7명)이 참여했다.

상반기 동안 그린즈는 ‘노키즈존’과 ‘아동학대’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답화문을 작성했다. 하반기엔 인식 확산 캠페인 및 디지털 시민성 옹호 활동, 정책 토론회 등을 실시했다.

이들은 국회의사당 국회의원실에 4차례 방문해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광주시교육청 아동복지시설학생 희망키움 조례개정을 위해 임미란 시의원과 간담회를 갖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최근 협력기관인 광주 서구와 함께 정책 제안회를 열어 토론회를 통해 도출한 필요 아동 정책 내용을 전달했다.

정책 제안회를 끝으로 그린즈는 지난 2일 광주 서구청 들불홀에서 해단식을 갖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참여자들은 그린즈 활동을 통해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입을 모았다.

단원 임세진(17)양은 “과거 나의 참여



지난 2일 광주 서구청 들불홀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소속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가 해단식을 열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 제공

권은 그저 학교에서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하는 정도였다”며 “그린즈로 활동하면서 직접 정책을 제안하거나 지역대표로 광주시의회를 방문해 희망키움조례 법제·개정 촉구 활동 등에 참여했다. 혼자였으면 못 했을 텐데 ‘그린즈’라서 가능했다. 나의 참여권이 확대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단원 부모들 역시 달라진 자녀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했다.

단원 임세윤(14)양의 어머니 정유정(45)씨는 “예전 막무가내로 요구를 했다면 교육 이후엔 ‘놀 권리가 있다, 참여권이 있다’며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며 “자녀 친구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다”고 웃음지었다.

단원들은 해단식 날 직접 투표권을 행사해 출석률, 참여활동 횟수 등을 기준으

로 한 우수활동자도 선정했다. 그 결과 동명중 차선우(13)군과 상무초 변승아(12)양이 우수활동자로 뽑혔다.

그린즈는 내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2024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단원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10~18세 아동으로 매달 1회 아동 관련 정책 제안 및 아동권리옹호 활동 등에 참여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해단식 때 단원들에게 ‘참여권이 향상됐다고 느껴진다’,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됐다’ 등 소감을 들으니 뿌듯했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아동 참여 활동이 확대되고 계속돼야 한다. 내년 그린즈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